

지역상생 '나주 시대' 승승장구

스마트워크...농어업 새 미래 연다



지난해 12월1일 본격적인 '나주 시대'를 열기 하루 전날 환하게 불을 밝힌 한국전력 본사 신사옥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나주 본사 사옥 개장식.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하 한전)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부채감축 이행과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한 결과, 결실을 맺고 있다.

한전 주가는 조환익 사장 취임 당시인 2012년 말과 비교해 60% 가까이 올랐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300% 가까이 증가하며 2년 연속 흑자 달성에도 성공했다. 한전은 지난해 매출액 57조3344억 4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만 1조 6737억원에 달했다.

광주·전남지역 상장사 14개 가운데 단연 1위이며 2위인 금호타이어(매출 2조 7551억원, 영업이익 2722억원)를 압도하는 수치다.

지난해 한전은 노사 합의를 통한 부채감축 및 복지 축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펼치면서 애초 목표보다 2조4000억원을 초과한 총 4조9000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특히 2014년 연결기준 결산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1% 늘어난 5조 7876억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1508% 증가한 2조7990억원으로 집계돼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영업이익 증가는 에너지 가격 하락·환율안정·원전가동률 증가로 연료비가 14.9% 감소하고, 전기판매량 증가·판매단가 상승으로 매출이 6.4% 증가한 것이 주

영업이익 300% 증가

부채 4조9000억 다이어트

지역진흥 38개 사업 추진

기업·대학 등 2622억 투자

국가 균형발전 선도

광주·전남 순조로운 정착

요인이다.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부터 줄어들어 올해에는 무차입 경영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채 비율을 129.9%까지 낮췄고, 옛 한전 본사 부지 매각대금 10조5500억원 중 절반은 부채를 갚기로 했다.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과 해외사업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 등도 큰 역할을 해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자본생산성·노동생산성·지식생산성 등 3대 분야에 걸쳐 전력설비 효율 향상, 현장중심 인력운용 등 7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고, 2017년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

이다.

한전은 나주에 등지를 튼 뒤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빛가람 에너지 밸리의 성공적인 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2622억원 규모의 '2015년도 지역진흥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 기업·대학·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38개 세부사업에 총 12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지역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4% 증액한 1348억원으로 편성한 것이 골자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한전이 나주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상생을 통해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한전이 광주·전남 지역의 자랑거리이자 혁신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1986년부터 28년간 이어 온 삼삼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12월1일부터 나주에 등지를 튼 한전은 본사 인력만 1531명이 나주로 옮겨오는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한전 나주본사는 지하 2층 지상 31층의 주민 친화적 개방형에 에너지 소비형 건물이 아닌 생산형 사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모델이다. 이 사옥은 6750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연간 2300만kWh의 전력을 생산, 에너지 자립률 42%로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자립형 건물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일명 '스마트워크(Smart Work)' 혁신으로 빛가람 나주시대 새로운 100년을 활짝 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농수산업인의 행복과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영산강농업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 대단위 농업개발과 새만금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곡물자급을 지원해오며 농수산업인과 함께했다. 또 1990년대 이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규모화와 농지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지난해 본사를 나주로 이전하면서 기업문화와 경영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스마트워크가 기반이 됐다. 스마트워크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말한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 조직·사무 공간·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 신사옥 공간은 물론 경영 전반에 실현해 하나의 기업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부서 협업 공간을 9개에서 49개로 늘렸다. 직원들의

업무전반 정보통신 접목

선진 글로벌 공기업 도약

농업용수 수리시설 정보화

전국 24시간 나주서 관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농업 기술 해외수출 박차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복지공간도 230㎡에서 2374㎡로 10배가량 늘렸다. 이러한 혁신을 인정 받아 농어촌공사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최한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공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본연의 임무인 깨끗한 농업용수의 확보와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반을 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농 여건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정부의 창조3.0 과제의 일환으로 농업용수와 수리시설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시설은 저수지가 58%로 가장 많고, 양배수장, 취입보 등의 순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용수 종합정보 시스템'과 '농업기반 시설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수위계측과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나주 본사에 구축한 '물관리 종합상황실'은 전국 24시간 급수관리부터 재해상황까지 감시하는 선진물관리 시스템의 최고 경지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는 농산어촌 행복추진활동, 농지은행 사업, 어촌지역개발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사업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가진 106년의 농어촌 개발 경험과 농업 인프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해외협력과 기술수출을 추진해 세계 최고 농어촌 개발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전국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학교를 나온 지역인재를 10% 이상 채용하는 목표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성과를 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농업관련 행사, 문화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상무 사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과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혁신도시의 성공과 광주·전남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창사 63주년

제17회 **담양** 세계를 향한 대숲의 깊은 소리를 들어보세요!

대나무 축제

대숲의 속삭임, 세계와 어울림!

2015 **5.1**금 - **5.5**화 5일간
죽녹원, 관방제림 일원

| 주최·주관 | 담양군 ·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

The 17th Damyang Bamboo Festival